

나의 그리스식 결혼



연세이비인후과
홍 성 수 원장

토요일 오후, 아내와 두 딸과 이른 외식을 하고 들어오면서 비디오를 빌렸다. 이미 대강의 줄거리나 중요한 에피소드 정도는 이래저래 알고 있지만 이런 류의 영화는 늘 그냥 저냥 온 가족이 군것질을 하면서 당굴거리며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유쾌하니까.

지중해 연안의 라틴 계통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는 민족적 기질이나 구교라는 종교적 전통을 공유하는 것 같은데 가족 중심적인 농경 사회적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성이나 문화나 생활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자면 예를 들어 특히 남부 이탈리아 남자들은 자기가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도 창피해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머느리는 어떠한가?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아버지가 대장이다? 아니다. 그냥 얼굴 마담이거나 예의상 그 권위를 지탱해 주면서 허드렛일이나 도맡아 하는 불쌍하고 단순한 존재(?)일 뿐이다. 화덕이나 마당의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나 구워 나눠 주고 어디 식탁 구석에 앉아 포도주나 마시면서 수다스러운





마누라와 자식들이 흥겹게 떠들고 노는 꼴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미소만 짓고 있다. 농경 사회나 전통 사회에서의 엄마의 힘은 사실 대단한 것이다. 아빠가 머리라면 나, 엄마는 목이다. 목이 돌아가면 머리는 당연히 그 쪽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무시무시한 자신감이 재미나다. 가족이라는 가치를 위해 그녀들은 일요일마다 온 가족을 불러모아 거창한 점심 식사를 한다. 성당에는 못 나가도 이저 결석하면 죽음이다. 그리고 역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한다. 그런 모임에라도 끼어 들면 오히려 나나 내 아내가 더 앵글로 색슨이나 게르만스럽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다.

희랍인(希臘人), 천문학과 철학과 민주주의를 발명한 민족이고 이 세상 모든 단어의 어원이 희랍어라는 자부심을 지닌 아버지와 억척어멈같이 생활력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상한 어머니의 노처녀 딸인 톨라가 주인공이다. 그녀의 열등감이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로 인한 주류 문화로부터의 소외 때문인지는 불명확하다. 좌우지간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非ANGLO-SAXON인 여자가 결국 앵글로 색슨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 지는 일사천리 유쾌한 과정이 전부인데... 그녀가 소망하는 주체적인 삶의 지표는 "BRAVIER, HAPPIER AND PRETTIER LIFE" 란다. 당당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일단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기에 컴퓨터를 배우고 이모의 가게에서 일하고 화장을 하고 옷맵시를 바꾸고 마침내 음성과 표정까지 바꾸게, 아니 바뀌게 된다. 그러자 마침내 사내가 따라붙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의 희랍인 남자 중에는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과연 그녀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을까? 요 대목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극적 갈등을 미묘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었을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필요 없다고 포기한 것인지.



남자 주인공인 이언(IAN, JOHN CORBETT)은 이미 "SEX AND THE CITY"에서 주인공인 부잡스럽고 정신 없는 여자, CARRIE의 결혼 직전까지 가는 남자 애인, AIDEN 역으로 친숙하다. 역시 가구제작자인 촌스럽게 시골 지향적이지만 진실하고 듬직한 남자의 역할로 나온다.



이 배우의 이미지는 그렇게 굳어가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집안 대대로 변호사를 업으로 삼아 왔지만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 두고 교사 생활을 하는 평범한 외동 아들인 남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이 들고 당연히 결혼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야 너무나 진부하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아 내느냐가 항상 관건인데 주변의 희랍인 대가족이 그릇이다. 직계 사촌(FIRST COUSIN)만 무려 27명에 항상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간섭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개인의 개성이 자리잡기 곤란한 상황과 너무나 조용한 가족이라고는 부모와 아들, 달랑 3명인 남자 쪽, 그리고 친정 아버지!

나는 향후 획기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한, 거의 분명하게 친정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역할만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친정 아버지의 역할과 심정에 너무나 쉽게 감정이입이 된다. 사위 감이 같은 희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란 생각이 들고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같은 배달 민족이라도 사위감은 다 도둑놈이고 심지어 외계인 같이 여겨질 터인데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 자라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심성인지 알 수 없으니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은 바로 좌절과 분노와 배신감일 것이다. 사위 감이 희랍 정교 교회에서 유아용 간이 비닐 풀에 풍덩 세례를 받는 눈물겨운 노력은 사랑의 힘이다.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이런 친정 아버지는 딸자식의 행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특징이 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쥐 버리는 촌티, 순박한 사랑을 감당키 어려운 것이다. 딸이 제 결혼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고 딸 결혼 시키려고 하다가 아버지 잡겠다(MY WEDDING IS KILLING DADDY.)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극복할 것이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백미는 단연 친정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사준 집이 바로 옆 집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참고로 앞에서 ‘이런 류’ (類) 라고 했는데 그 ‘이런 류’ 란 PRETTY WOMAN, THREE WEDDING AND ONE FUNERAL, MY BEST FRIEND’S WEDDING, MICKEY BLUE EYES, NOTTING HILL, BRIDGET JONES’ DIARY를 일컫는다. 다 결혼에 관련된 유쾌한 영화들이다. 우울할 때 보면 다소 기분이 업된다.

조금 다른, 그러나 비슷한 ‘아류’ (亞類)로는 JERRY MAGUIRE, WHAT PLANET ARE YOU FROM?, BEND IT LIKE BECKAM, THE ROYAL TENNENBAUMS, HIGH FIDELITY, BEING JOHN MALKOVICH, HUMAN NATURE, ADAPTATION이 있다. 재미는 있지만 이제 다소 심각해진다.

여기서 좀더 외연 하자면 THINGS YOU CAN TELL JUST LOOKING AT HER, AMERICAN BEAUTY, MAGNOLIA가 있다. 아주 심각하고 부담스러워 지는데 그 끝에는 아마 THE HOURS가 있게 될 것이다.

